

여야 5·18 광주 ‘총집결’… 헌법 수록 메시지 ‘주목’

민주,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 동참
내일 기념식 후 DJ센터서 당원 행사
국힘, 행사 참여후 총선 평가 간담회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추모 받길

서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오전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기념식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오월 정신’을 되새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념식이 끝난 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22대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당 내부 혁신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고 저도 18일 비대위원장과 지도부 그리고 22대 당선인, 현역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조국혁신당도 광주·전남을 찾아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 대표와 당선인 등 당 지도부 20여명은 18일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순천으로 이동해 당원 모임을 갖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주영, 천하람 당선인 등 개혁신당 지도부도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영령들을 추모한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 역시 17일 민주평화대행진과 5·18 전야제에 이어 18일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요즘과 같이 오월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때가 없었다. 특히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처럼 열기가 높은 상황 속에서 여야 지도부는 물론,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전야제와 기념식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총집결한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18 44주년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가장 먼저 광주를 찾는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정래 최고위원, 22대 총선 당선인 등은 오후 5시 전야제가 열리는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민주평화대행진’에 동참한다.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8일 오전 44주년 기념식 참석 후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편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총선 당선인들은 17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같은날 오후 3시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묘문 앞에



잠행 끝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정상 내외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식 오찬을 마친 뒤 혼 마넛

캄보디아 총리 내외를 환송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마땅”

황우여, 공법 3단체 간담회서
“여야 협의 기반해 담아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

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도 (대선) 당시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주요 인사들도 5·18 정신에 대

해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여건이 무르익으면 여야가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세밀히 살피며 정밀한 검토를 하고있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 정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5·18 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광주 정신을 잘 이어받아 집권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5·18공법3단체 측은 “황 비대위원장은 (헌법 전문 수록에) 100% 공감하지만 그 절차가 집권 여당만

으로는 안되고 야당의 협조와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진상조사가 부실하다고 한다”면서도, “암매장이나 발표 책임자에 대한 상시 조사가 가능한 여건과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 사무총장은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헌법 개정 자체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지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공제금(공제)은 공제대상 소득(소득금액-소득공제)에 대해 2024.03.11~2025.2.28
위 원고내 배당소득기 기한에 대해 연한 정제를 거쳐 제공된다. (세금보조 연한) 노란우산은 예금보유액에 따라 예금보유공제기 보호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에 공적 공제금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0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포함하여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란다.